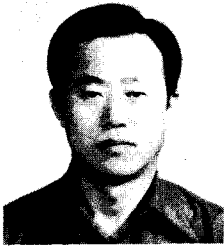


사료공업 근대화와 사료관리법

— 기업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이 헌 범

(〈주〉퓨리나코리아 품질관리 부장)



이제 우리는 연간 배합사료 400만톤 생산의 사료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10년 이내에 1,000만톤 생산을 이룰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술의 획일성, 배급성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사료공장의 창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인 체제를 벗어나 업계 주도형의 기술 서비스가 가격경쟁체제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되겠다.

「사료공업 근대화와 사료관리법」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사료 수요량이 올해에는 400만톤,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1,000만톤에 육박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과거의 배합사료 생산실적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에 맞추어 사료공업 시설 근대화란 지침이 나오게 되었고 사료업계는 법이 요구하는 기계 및 장치 시설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료 공업의 시설 근대화라는 말 속에는 사료의 품질 향상, 안정된 공급, 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과 명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설 근대화가 곧 사료 공업의 근대화인 것처럼 흔히 오해가 되어지는 근본적인 모순점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를 느낀다.

사료공업 근대화와 시설 근대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료 공장의 시설 근대화는 사료공업 근대화의 일부는 되겠지만 근대화의 근간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시설을 근대화 하였다 해서 사료 공업의 근대화가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즉, 사료 공장의 시설이 기계화 또는 성력화(省力化)되었다고 해서 사료의 품질이

우수해지고 사양가에게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제품이 공급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료 공업의 기술적 내용의 핵심은 시설의 기계화나 대규모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1.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의 설정
2. 사료급여 프로그램의 설정.
3. 원료의 영양평가 기술.
4. 원료의 합리적 품질기준 설정 및 기하 설정된 품질 기준의 추적방법
5. 배합표의 경제적 작성기법.
(Linear Programing과 L. C. P. 방법)
6. 생산공정상의 품질관리기법.
7. 생산시설의 경제성 및 과학화.
8. 대고객 기술지도 활동

그런데 이상 열거한 것 들은 어떤 고정된 수치로 대표될 수 없는 지극히 유동적인 기술사항인데 반해서 이것을 하나의 고정 수치로 오해하는 근본적인 오류 때문에 현행 사료관리법은 기술사항까지도 규정해 주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빈번한 사료관리법 개정 작업 또는 행정지시등의 예를 볼 때마다 시행착오적인 오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 근대화 방안은 다만 고도산업 시대의 노동력 절감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기업 경영 내부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요구되어질 사항은 아닌것이다. 제아무리 최신의 반자동 또는 전자동설비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해 온 수동식 기계의 배합 과정과 비교할 때 더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배합 사료공업의 품질관리가 다른 기계산업과 달리 기계 설비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펠릿사료시설에 대한 비판

현재 우리 사료분야에는 펠릿사료의 우수성 및 필요성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원료의 이용성 증진 또는 위생적인 면에서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한 사료 효율의 증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펠릿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이다. 즉 펠릿을 만들기 위한 자원의 투입액에 대한 펠릿 사료의 효과와의 비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기업과 사양가의 판단에 맡겨야 할 항목이지 법적으로 지정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과거 십여년간 계속 이 점을 검토해 왔으나 항상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져 아직껏 미루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시설 근대화가 사료 공업의 근대화의 방안이 아니라면 과연 사료공업 근대화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시켜 나아갈 것인가?

서두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불원 1,000만톤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사료공업의 근대화를 위한 시책이 시급함은 물론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교도주의적 규제 중심의 사료관리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기업 중심의 기술, 서비스, 가격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곧 사료 정책이 축산행정 성패의 관건이란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적인 사료관리법 제정과 그 합리적 운영에 대해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료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시장원리 및 마케팅 정책을 최대한 살리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품의 개발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법규는 사료의 영양성분과 제품 종류의 등록을 한정하고 있는바 사양가들은 이 이상의 여러 종류의 사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 퓨리나 미국 본사의 공장에서는 200여 가지의 사료가 생산되고 있고, 퓨리나 남미지역 및 유럽국가군에서도 한 나라에서 약 70~80종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제품에 대한 자기 보증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술의 획일성, 배급성의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료등록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가격의 자율화

사료가격이란 현행과 같이 하나의 가격으로 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료의 품질이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가격을 하나로 지정한다는 것은 사료를 지정된 그 가격에 맞추어 생산하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사료가 단순한 소비재라면 최종 수요자인 사양가가 절약하고 감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료는 엄연히 가축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생산재이며 따라서 판매가격에 맞춘 사료제품이란 가축의

생산성 저하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빈대 타 죽는것 좋아서 초가삼간 다 타는것 모른다.”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가격규제 상황 하에서 과거 몇년을 시행착오가운데 지내 왔는가! 과연 가격 자유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는가!

혹자는 사료제조업자가 품질에는 인색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사료공장을 한 사람은 다 재벌이 되었다고 평하는데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사료업계에서 일해오는 동안 재벌이 된 사료업자 하나 못보았고 타업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업계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뒤떨어졌는가 하는 애석함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수익의 발생이 타 업종에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했고 따라서 재투자가 없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우리도 성장해야겠고 이제 적어도 소아병적인 질시의 눈으로 사료업계를 보는 자세부터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료원료 공급의 원활화

자율가격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적기 적량의 원료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또한 사료품질의 안정화의 근본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1,000만톤의 사료원료를 해외로부터 적절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료도입의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사업으로 부두 저장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당국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료 조성분 검사제도의 개선

현행 사료검사는 자못 교도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현행의 현물검사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조성분이 사료의 품질과 어떤관계가 있기에 사료의 품질관리제도로써 지금과 같이 그럴싸하게 복잡해졌고 또 그렇게 열심히 검사를 하

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퓨리나가 세계 30여개국에서 사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방법의 조성분 검사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다만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시아권에 몇나라가 있을 뿐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에서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점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성분 분석은 제조업자 자신의 품질관리의 척도로써 이용되고 그리고 사료원료의 영양평가 방법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제품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제품의 질은 사양결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성분 검사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잦은 적부시비가 일고 있는지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료업의 근대화화 안정화의 방안은 경쟁의 유발로서만 가능하다.

제조업체가 품질향상, 가격안정 및 서비스 확대의 길을 따르려면 자유경쟁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 개념에 속한다. 현금의 사료공장 시설 근대화 지침은 과중한 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고 기존업자의 수익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의 수익성으로 보아 도저히 투자할 의욕을 가질 수가 없다. 사료공장의 대규모화 또는 시설 근대화가 사료의 품질과 무관할진대 자연발생적인 증자와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가격규제의 해제, 시설 근대화의 축소 조정 및 사료 공장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관리법의 합리적 제정 및 운영

오늘날의 사료과학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전

문성을 지닌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을 다룸에 있어 영양학적인 측면, 사양관리학적인 측면, 사료공학적인 측면, 국민위생보건학적인 측면, 어느 하나 개인적이거나 단편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 즉, 전문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껏 사료관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적 모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결론부터 말해서 사료관리법의 심의 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운영되어야 하겠다. 심의기구의 구성은 그 주체와 객체가 사료제조업자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양자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제기된 문제에 따라서 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 위원회를 수시로 위촉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합의점에 도달하는 형태로 운영함이 옳을 것이다. 현재까지 사료관리법에 관한 문제의 제의와 토의의 방

법은 너무나 즉흥적이었고 단편적인 의견 청취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해결은 언제나 내용보다는 외적인 형식을 충족시키는 과정의 합리화에 치우쳐왔다는 것이 업계공통의 의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언하거니와 정부는 사료관리법을 다룸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 경영, 시장관리등의 제반 문제를 법적규정으로 관리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경제원리에 따라 물 흐르듯 적응해 나가도록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배경적인 면을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서로 지향하는 취지는 같되 접근하는 방법의 차질에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고도산업 및 국제적 경쟁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업의 의사가 존중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의 새신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동호가축약품상사

- 난치성 질병 상담
- 칠면조 사양·질병상담
- 가축약품 종합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서울시 강남구 천호동 410-186

☎ 48-5600

신장	천호출장소 신탁은행
천호사거리	
농협은행	동호가축약품상사
잠실	